

“한미 백신 전문가 그룹, 범정부 TF 조속히 구성”

김부경 국무총리, “한미 백신 파트너십 계기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김부경 국무총리는 1일 “한미 간 소통 채널 역할을 담당할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과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등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터는 ‘일상회복 지원방안’도 시행되면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국민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세계적인 백신공급 부족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구축하기로 한 포괄적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큰 의미가 있다”며 “우리의 의학·약품 생산능력과 미국의 기술을 결합해 대량의 백신이 생산·공급되면 국



김부경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사회의 코로나19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신종 감염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백신 국내 투자·개발·생산 등 관

련 계약과 MOU(양해각서)에 대한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김 총리는 “큰 타격을 받았던 우리 경제도 수출 호조와 투자증가 등으로 회복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어려울 때 빛을 발하는 우리 국민의 자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더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경제회복과 도약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소외된 분들을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상반기 중 마무리해야 할 현안을 꼼꼼히 점검해 보는 한편, 하반기 내수·소비 진작과 수출·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 등을 미리 검토·준비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하반기에는 온 국민이 기대하는 일상으로의 복귀와 함께, 확고한 경제회복·민생안정의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내각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31일 종료된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 대해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기후대응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앞으로 기후행동 강화 등 이에 상응하는 책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난 주말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힘을 모아 국제사회에 공헌한 우리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

도, 하절기 대비 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안전점검

전북도가 오는 7월 16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하절기 풍수해 및 화재 등 대형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 예방, 급식위생 상태,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 확보 차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특히, 소방·가스·전기·시설물 등 전문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상 태 집중 점검 및 안전점검지표 보완 필요사항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병행 실시한다.

주요 점검방법은 사회복지시설장 감독 하에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추후 복지부, 지자체 공무원 및 전문가(시설, 전기, 가스, 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팀이 각 시설유형별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점검에 대한 점검결과 후 행정업무지원시스템 입력 및 점검 관련 건의사항·제도개선 요청사항 적극 발굴, 개·보수 필요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게 된다고 한다.

김현욱 도 노인복지과장은 “하절기 풍수해 및 화재 등 대형 시설 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대비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안전 점검에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결과 브리핑 정의용(왼쪽) 외교부 장관과 한재호(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결과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북도,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신청 접수

전북도가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을 확대한다.

도는 현재 21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시설을 25개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오는 6월 11일까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이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가 병원 진료, 외출, 시간제 근로 등의 사유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

원센터 등)으로부터 단기적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다.

이용 가능 인원은 제공기관 1개소당 3명까지이며, 보육료는 가정양육수당 대상자의 경우 시간당 1천원(정부지원금 3,000원), 보육료나 유아 학비 지원 대상자는 4,000원(정부지원금 없음)으로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유호상 기자

이용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아동을 등록하고 사전 예약하면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며,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젊은 부부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우수’

한국전문문화재단 리빙콘텐츠DIT센터, 2020년 연차평가 A등급 올해 4차년도 사업 비대면 콘텐츠 보강·방역관리 강화 추진

한국전문문화재단(원장 김진태) 리빙콘텐츠DIT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2020년 연차평가에서 A(우수)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 메이커스페이스는 192개로 일반랩 180개, 전문랩 12개가 운영 중이다.

리빙콘텐츠DIT센터는 지난 2018년도에 선정돼 현재 4차년도 사업에 선정돼 있다. 지난 3년 간 36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8,855명의 참여자와 함께 8,208건에 달하는 제작품을 생산해냈다.

센터의 운영은 크게 교육·체험, 제작 프로젝트, 메이커 자유제작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체험은 3D프린터, 레이저자르기 등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장비의 활용·안전교육, 예술가의 조형기법을 공유하는 아트 메이커 강의, 한문화 제작키트와 영

상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제작 프로젝트는 제작과 놀이, 공연, 시각예술을 결합하여 참여자들이 함께 활동하는 DIT센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손으로 가족 캠프·연극·인형창극·전시 등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

▲메이커 자유제작은 공간과 장비 활용신청을 통해 DIT센터에서 스스로 만들고 싶은 제품 제작이 가능하며, 기술·디자인 등 매니저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올해 4차년도에는 코로나 시대로 인한 변화를 기회삼아 비대면 콘텐츠를 보강해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공간·시설 방역관리를 강화해 대면 프로그램 또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리빙콘텐츠DIT센터의 대표 프로젝트인 초등학교생들과 함께하는 제작x공연 프로젝트를 기획해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내달 리빙콘텐츠DIT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공모

전북도, 남원·무주·장수 관내 백두대간 지역 생산자단체 대상

전북도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보호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 대해 신청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인 이번 공모 사업은 주민들을 자발적인 백두대간 보호 주제로 유도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확대하고 임산물 생산·가공시설 및 유통기반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를 도모해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 지역은 남원·무주·장수 관내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읍·면·동 지역으로, 오는 6월말까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다만, 동일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생산자단체 혹은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생산자단체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품목으로는 호두·대추 등 수신품류와 표고버섯 등 버섯류, 덕덕·

도라지 등 산나물류, 약용류 등 7개 분야 79개 품목이다.

2022년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는 생산자단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시·군 및 도·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가 최종 선정된다.

접수는 마감일 오후 6시 이내 도착분에 한 해 인정하며 사업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북도는 2017년부터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이다.

전북도 허진 환경복지국장은 “백두대간 주민지원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임업인과 신청에서 선정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최대한 선정되어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